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1월 22일(금)

(윤력 10월 22일)

Пятница

22 ноября 2024 г.

№ 45 (1211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로 기념한다. 올해 어머니의 날은 11월 24일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노골리키, 새 시장 선출

11월 20일 노골리키 시의원 총회에서 노골리키 지역 새로운 시장으로 세르게이 구리아노브가 선출되었다. 그는 스포츠센터 '아레나' 사장이자 의회 의원이다.

시장 보직을 두고 현 시장인 세르게이 카멜린, 세르게이 구리아노브, 전 의회 의원인 포트르 센텔레브 등 3명의 후보가 경쟁을 치렀다.

비밀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14명의 의원들 중 13명이 투표에 참가해 개표 결과 세르게이 구리아노브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12월 3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맛과 전통> 가정축제에 초대

11월 24일(일) 14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맛과 전통> 가정 축제 행사 폐막식이 열린다. 3개월간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연과 활동교실, 사할린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을 보여주는 전통결혼식 시연을 진행해왔다.

9월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한국, 러시아, 타타르, 아르메니아 국민의 대표들이 시연하는 그들 가정의 다양하고 독특한 전통을 관람할 수 있었다. 가정축제는 가정의 해를 맞아 '사업하는 여성' 전 러시아 사회단체 사할린 지부가 주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7만 여 명 독감예방 접종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계속하는 가운데 11월 20일 기준 7만 2,700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중 1만 8,000명이 아동이고, 성인은 5만 4,000명이 나 된다. 사할린주에서 독감예방 접종은 보건소, 응급산부인과 진료소, 외래환자 진료소, 포베다(승리) 광장, '스틀리차'쇼핑센터, '돗토르고블리' 쇼핑센터 부근에 배치된 3대의 이동진료차량에서 접종한다.

사할린의 미인들, 상금 1백만 루블리를 두고

미스 사할린대회에서 경쟁

<미스 사할린> 미인선발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가운데 우승자에게는 상금 1백만 루블리가 수여된다. 미인선발대회 조직위원회는 10월 말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해 11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참가자들은 브콘탁트(VK)에 행사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동영상 자기소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약 1분-2분간 자신을 후보로 나서는데 대한 짚막한 설명을 해야 한다.

미인선발대회에 대한 선발기준 및 선발 단계 등에 대한 추가 정보는 브콘탁트(VK) 행사 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어머니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로 이날을 맞아 어머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날은 참 선하고 찬란한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자녀에게 삶을 주고, 슬픔과 기쁨 속에서도 늘 지지해주는 어머니의 참사랑이 충만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친근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멀리 있어도 우리는 항상 어머니의 배려를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니고 있는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게 하며,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그 따뜻함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친지들에게 베풁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좀더 나아집니다.

소중한 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조국에 대한 사랑과 창의적인 일에 대한 동경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할린 지역에 사시는 어머니들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가운데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어린아이들이 가치 있는 교육을 받으며, 창의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체육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현재와 미래의 어머니들에게 강건함과 자녀들의 사랑과 친지들의 존경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회적 진출 안내자 및 멘토링> 포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회적 진출의 섬들> 러시아 청년청의 연중 청년교육센터가 청년 전문가들을 위한 '사회적 진출(커리어career)' 및 상담안내 시스템 개발에 따른 포럼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18세부터 35세의 청년들로 청년단체 대표들과 연방 전문가, 지역 기업의 대표들로서 추와시아 공화국, 아무르주와 사할린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사회적 진출 안내자> 시범기획 실행의 로드맵을 개발해야 했다. 청년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움직이며, 안내해 줄 지도자들을 배정했다.

사할린주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 후에 국내 다른 지역으로 전달한다. 이 행사는 러시아 청년청이 '사회적 진출'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사회적 진출의 안내>, <참가자들> 등 3개 방면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전문가> 그룹은 고용주, 정부기관, 여러 공직기관의 대표들과 '사회적 진출'센터의 대표들로 구성됐고, <사회적 진출' 안내자> 방면에는 시설기관, 직업전로 안내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고, 상담을 하는 단체와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포럼 프로그램에는 이론적인 부분과 전체 토론, <두뇌폭풍(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토론이 포함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회적 진출의 안내자로서 실습을 하고, 포럼 결과는 11월 19일(화)에 발표되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주민들, 사할린주 사회적 대상 기획 예산안에 찬성

사할린주 공청회에서 사할린 주민들이 2026년, 2027년 계획 기간과 2025년 사할린주 기획 예산안에 찬성했다. 공청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가운데 직접 및 화상으로 정부기관 및 의회 의원, 사회활동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알렉세이 벨리 사할린주 총재는 "주요 재정안에 대한 구성 작업은 반러시아 제재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수익될 만한 것을 동원해 균형 잡힌 주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2025년 - 2027년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들과 사할린 주민들의 질적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지출은 전액 지급된다. 이는 지역 정부의 우선 과제이다. 2025년 총지출액에서 사회적 부분의 배정 비율은 48%인데 이는 우리 예산이 사회적 명목 지출을 유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와 교통, 건설 및 공공장소 개발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고, 동시에 지역의 잠재적 수익 확대에 따른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투자된 사업활동의 향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사할린주는 일련의 대규모 기획들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곧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 건설에 착수하고, 코르사코프 항구는 현대화 작업이 진행된다. 향후 포로나이스크의 항구와 3개의 수산물가공공장이 건설되며, 사할린의 2차 석유가스산업단지 개발과 '고르니 워즈두흐' 관광 산악스키단지 개발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2025년 - 2027년에는 매해 지역 총생산 성장률이 2% -3%에 해당되어 2027년에 지역 총생산액은 2조 루블리가

넘을 것으로 주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사할린주 재무부 올가 로파티나 장관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25년 주 예산의 수익은 1,780억 루블리에 달하고, 2026년에는 1,945억 루블리, 2027년에는 1,930억 루블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에 총지출액은 2,033억 루블리이며, 가장 중요한 액수인 950억 루블리는 사회적 성격의 국가프로그램 시행에 배정되는데 그 대상은 의료, 교육, 다양한 영역의 국민 지원, 체육, 스포츠, 청년정책과 문화 발전이다.

올가 로파티나 재무부 장관은 "향후 3년간 예산안은 보건시설 건설에 6억 루블리를 배정할 계획이고, 세웨로-쿠릴스크 지역 중심지에 병원 건립이 계속되며, 피오네르 마을을 비롯해 프라우다(홉스크 지역), 고르노예(쿠릴스크 지역), 키롭스크에(티몹스코예 지역), 포페지노(스미르니흐 구역), 다츠노예 마을, 트레치야 파지, 레스노예 마을(코르사코브 지역), 페트로파블롭스 마을, 우스펜스코예와 오킨키 마을(아니와 지역)들에 응급진료소와 산부인과 응급진료소를 위한 조립식이동구조물을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3년간 사할린 지역에는 64개의 시설들의 건설 및 재건 설이 이뤄지는데 그중에 2개 학교와 1개 유치원, 1개 유아원, 1개 보건소, 4개 문화센터, 3개 스포츠 시설물, 21개 시설에 공공 사업이 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향후 3년간 사할린주의 예산안을 찬성하고, 지역 의회 의원들에게 채택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들, 제빵업과 택시영업 근로제재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일련의 근로 업종에 근로허가권을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금지 시행에 대한 법령을 승인했다. 이 고용제재에 대한 법령은 2025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제재 법안은 경제활동의 24개 업종에 적용되는데 그중 제빵 및 제과 제조업, 식품 소매업, 보안서비스, 버스 운송업, 택시영업 및 운전사를 포함한 렌터카, 식당 잡무와 음식 배달업,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을 비롯해 아동 보육 관련 분야, 소독, 방역, 통신장비수리, 유희 행사 및 장례식 조직 분야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새해부터 개인적으로도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필요로 서비스 제공 및 제품 생산에 외국인 채용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금지된 근로업종에 대한 전체 목록은 지역 정부 홈페이지 '사할린주 정부 및 주지사의 법적 규제명령' (2024년 11월 14일부 법령 52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근로허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정해진 기한 내에 외국인 근로자와의 협력을 종료해야 한다. 법인이 채용금지 법안을 위반할 시에는 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벌금으로 최대 1백만 루블리가 징수되며, 행정적 경제활동 정지는 최대 90일을 받게 된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이 모 저 모

<필라 크 엔> 남호 앙상블, 사할린에서 65주년 기념

남호 민족유산의 계승자인 사할린의 '필라 크 엔(큰 태양)' 앙상블이 65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사할린 네프짜니크' 신문이 전했다.

1959년에 창단된 이 앙상블은 사할린 최초 남호 문화의 보전과 대중화에 헌신해온 예술단이다. '필라 크 엔' 예술단의 공연은 자연과 동물, 전통이 어우러져 독특한 역할을 하는 남호인의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한다. 이들의 춤과 노래와 의식은 이 민족의 독특한 세계관과 정신적 유산을 드러내고 있다.

11월 30일(토)에는 예술단의 풍부한 역사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조성된다. '사할린에너지'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는 <태양을 따라> 기획은 남호족의 문화유산 보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기획의 총결로 오하 지역 문화회관에서 <필라 크 엔>의 공연이 개최된다.

На Сахалине нивхский ансамбль «Пила к'ен» празднует 65-летие

Сахалинский ансамбль "Пила к'ен" ("Большое солнце"), хранитель наследия нивхского народа, празднует 65-летний юби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газете "Сахалинский нефтяник".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в 1959 году ансамбль стал первым коллективом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й посвятил себ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 сохранению нивхской культуры. Выступления "Пила к'ен" переносят зрителей в мир нивхов, где природа, животные и традиции играют особую роль. Их танцы, песни и обряды раскрывают уникальн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и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этого народа.

В честь юбилея 30 ноября состоятся 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программа, посвященная богатой истории ансамбля. Проект "Вслед за солнцем", реализуемы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стал важной вехой в сохранении нивхского наследия. Его итогом станет отчетный концерт "Пила к'ен"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ном Дворце культуры.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코스프레 대축제 열려

11월 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코스프레 대축제에 연령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섬 문화' 사이트에서 전했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을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재연해야 하며, 코스프레 공연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솔로(30분 -1분50초)', '그룹(5분 이내)으로 참가해야 한다.

코스프레 공연은 '게임 코스프레-쇼', '비게임 코스프레-쇼', '그룹/2인조 코스프레-쇼' (참가자가 충분히 많을 경우 수상 부문도 공개된다.) 등 다양한 부문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

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연 프로그램 외에도 주제별 구역과 작가들의 오솔길, 실제 원 만화와 스티커, 기념품, 수공예품 판매 구역이 축제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축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большой косплей-фестиваль

В конце ноября состоится косплей-фестивал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тором с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старше 14 ле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ортал "Острова культуры".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долже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олноценный и законченный образ своего любимого персонажа. Выступления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пределенному формату: сольное (длительность от 30 секунд до 1,5 минуты) и групповое (длительность не более 5 минут).

Фестиваль порадует зрителей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номинациями: игровое косплей-дефиле, неигровое косплей-дефиле, групповое/парное косплей-дефиле (номинация будет открыта при наличии достаточ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Кроме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ы,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ожидают широкая площадка с тематическими зонами, аллея авторов и маркет-зоны с оригинальными комиксами, стикерами, мерчем и хэндмейдом.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естивале и его программе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ероприятия.

사할린의 <화산 속 화산> 영화, <극동 모험의 땅> 영화제에서 상영

그리고리 고르차코프 감독이 사할린에 있는 크레니친 화산을 주제로 흥미진진한 여행에 대해 제작한 영화가 '극동 - 모험의 땅' 경연에서 상영되었다고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전했다.

크레니친 화산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산 속 화산'으로서 매해 2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찾아 대담하게 방문하고 있다. 화산의 칼데라부터 칼데라 호수와 실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주 오래된 화산 정상까지 비경이 펼쳐진다. '극동- 모험의 땅' 영화제 참가자인 고르차코프는 "크레니친 화산은 화산들 중 유일하고도 독특하며, 접근이 어려워 러시아의 기운의 장소로 명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Фильм о сахалинском "вулкане в вулкане" показали на конкурс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Фильм режиссера Григория Горчакова о захватывающем путешествии на вулкан Креницына, расположенном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конкурс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Эт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е мес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крупным в мире "вулканом в вулкане". Ежегодно лишь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осмеливаются посетить это неприступное чудо природы. С кальдеры вулкана открывается грандиозный вид на кольцевое озеро и вершину более

древнего вулкана, окруженны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ронутой дикой природой.

"Вулкан Креницына —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воем роде, неповторимый и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й и он определено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силы России", — сказал Горчаков, участник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자신을 발휘해> 예술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자신을 발휘해> 댄스 부문 예술축제 결승전이 11월 1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제14회 축제가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역대 기록적으로 70명이 참가해 경쟁을 치르며 결승전에 33명이 진출했다.

올해는 새로운 시도가 민속, 고전, 현대 무용 등 3개 부문에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경연 심사에서는 아마추어인지, 전문가들인지, 참가자들에 대한 준비 수준이 참작되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арт-фестиваль «Заяви о себе»

16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финал арт-фестиваль "Заяви о себ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Танц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Он прошел на базе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уже в 14-ый раз. За победу боролись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 70, но в финал удалось выйти только 33.

Нововведение этого года – все номера поделены на три направления: народные, классическ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анцы. Кроме того, учтён и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участников: любитель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

삼보 경기에 6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찾다

전 러시아 삼보의 날(11월 16일)을 맞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삼보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위스토크' 다종목 강습-훈련센터 체육관으로 극동의 여러 지역에서 온 600여 명이 넘는 삼보 선수들이 모였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개막식에 사할린주 세르게이 바이다코프 부지사가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의 건투와 인내와 강한 정신력을 기원했다. 11월 16일 첫날 경기에는 연령별로 10세-12세, 16세-18세의 삼보 선수들 200여 명이 출전해 경기를 치렀고, 11월 17일에는 청소년부와 성인부 각각 결승전이 진행됐다.

На праздник самб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ехали свыше 600 спортсменов

С 16 по 17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самб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зала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6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수상작 사할린 사람의 사고방식이란?

2위, 이(니) 잔나, 1968년생, 블라디보스토크

(전호의 계속)

나는 6개월간 실직했습니다. 그 후 저는 8년제 학교에서 사서로 취직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전적으로 러시아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될 사람,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외관상으로 북방소수민족과 매우 비슷한 생김새였습니다. 그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학생들과 합동행사, 경시대회, 아마추어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친구로 사귀게 되었고, 1966년 5월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선택하여 잔나와 보바로 지었습니다. 2021년 5월 4일 우리는 결혼 55주년을 맞이하여 에메랄드 결혼식을 기념했습니다.



시집은 지 25년이 지났어도 항상 저는 시어머님 최 타치야나 씨 (1904-1998) 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하곤 합니다. 시아버님인 한 덕춘씨 (1901-1961) 는 사회주의 노동영웅이셨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여전히 잠 자고 있을 때 시어머님은 벌써 바닷가에 가서 타타르 해협 과도 밀려온 해초, 미역, 문어, 조개, 생선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오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추운 겨울에는 늘 맛있는 해산물과 미역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통신과로 공부하도록 지원해주셨습니다.

통신과 공부

제 인생에서 중요하고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의 도시에서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소련 공민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소련 여권을 받은 후 소련 공민이 되었습니다. 소련 여권만 있으면 전국 어느 대학교나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사범대학, 화학 및 생물학 학부에 입학하고, 통신과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진급시험을 보러 다닐 때 한 아이를 시어머님에게 맡겨두고, 다른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국에 가서 장학관에게 진급시험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국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저의 말을 듣고는 아이를 유치원에 배치해주었습니다. 항상 감사할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치원은 사범대학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유치원 중급반에는 자리가 없었고, 아이는 초급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쯤 저는 대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네 번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나를 '나탈류쉬카'라는 별명을 주었고, 우리 가족은 저를 '부영새'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부였습니다. 좋아하는 속담으로 '한 평생 살며, 한 평생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생선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요리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독서, 낚시, 외국어 배우기, 탁구 치기, 아코디언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곡은 '사할린의 봄', 아코디언 노래의 유명한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작은 아버지(전두한)께서 지으신 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너가수는 '러시아 금 목소리'인 니콜라이 바스코프입니다.

큰 땅의 생활

어려운 90 년대가 되었습니다. 직업의 변화로 하바롭스크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외방송국의 직원인, 조선말 방송 아나운서로 취직했습니다. 10년 후, 국제 방송국은 폐쇄되었고 모스크바가 본사인 국제 라디오만 남았습니다. 불행의 도움으로 행복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바롭스크 국립경제법률대학교, 국제경제관계학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안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태평양국립 대학교로부터 초빙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하바롭스크시 제 15호 중학교에서 계속 역사와 미술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예술창조 클럽 '로드니크'의 협회 회원이 되어 '로드니크' 전시회에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교원으로 일하면서 (민속예술축제의 제 II 수상자), <노동노병>, <명예 교원> 메달과 칭호를 받았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남편이 되고, 직위를 얻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항상 후방활동으로 뒷받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존경할 만한 나이가 되어 편안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딸 이 잔나 씀
(편집부에서 글 교정함)

사할린 주지사상 제1회 극동 무술축제 진행

지난 11월 1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무술센터에서 사할린 주지사상 제1회 극동무술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국가기획 '인구통계학'의 '스포츠는 삶의 표준이다' 연방기획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행사는 사할린주 스포츠부, 사할린주 선수 양성센터,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 동양무술학교가 주최해 행사에 많은 선수와 관중들이 모였다.

행사 개막식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과 타악기 팀의 공연, 태권도 선수들의 시범 공연이 흥을 돋우었다.

이날 사할린 주정부 워토르 유슈크 부총재는 사할린 주지사의 환영사를 대독하며

"제1회 극동동양무술축제 개최는 사할린 지역의 획기적인 행사이다. 동양무술은 인격을 형성하고, 의지와 정신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다. 이 축제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참가선수들에게는 공정한 싸움을, 싸움을 보는 관객들에게는 밝은 감동을 기원한다.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기를!"라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말을 전한 부총재는 앞으로 이 축제가 지역의 좋은 전통적인 행사되길 기원했다.

이날 하바롭스크 변경, 캄차트카주, 연해주, 사할린주에서 출전한 총 250여 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며 가라테, 씨름, 태권도 종목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사할린 가라테연맹, 대한씨름대표단, 토네이도 스포츠클럽의 태권도 선수들의 공연과 3인조 태권도 대표팀의 시합이 펼쳐졌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가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연해주 아르쎬시, 고려인·한인 러시아로 이주 160주년 기념 '연해주 문화 교류 행사' 개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연해주 아르쎬시 문화센터에서 고려인·한인 러시아로 이주 160주년 기념 '연해주 문화 교류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는 (사)연해주동북아 평화기금, <원동>고려인비즈니스클럽의 주최로 아르쎬시청,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사)동북아평화연대 후원으로 진행됐다.

문화교류의 주요 행사로는 K-디아스포라의 예술전, K-문화교류 마당, 고려인 예술단 공연 그리고 한국문화를 선보이는 우리옷(한복) 패션쇼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막식은 지난 20일(수) 아르쎬시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 진행은 전북대학교 고려인연구소 소장 윤상원 교사가 맡았다. 개막식의 사전 행사로 성균관 유도회 서울시 본부에서 고유례를 치렀다. 고유례는 유교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공자 사당을 찾아 이를 알리는 한민족 전통의식이다.

고유(告由)는 큰 일을 알린다는 뜻으로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조상님에게 알리는 의식인데 이번에 고려인의 대표 최재형 선생과 고려인 선조에게 고려인 이주 160주년 행사를 알리는 예식으로 준비되었다.

행사에는 한국·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등 연해주 주변 곳곳의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 등이 참여했으며, 태권 시연·우리 옷 패션쇼·아르쎬시 칠성가무단의 부채춤·우수리이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공연단의 북공연 등이 관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또한 개막 행사 자리에서 한국기업들로부터 아르쎬시 칠성가무단과 키르기스스탄 미래한글학교에 후원금이 전달되었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예술전에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 한국에서 미술가 20명이 참여하고, 작품 5점씩 총 100점이 출품되었다. 미술작가들은 전시 후 자신의 작품 1점을 기증하고,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고 주최측에서 전



했다. 사할린을 대표해 이번 전시회에 이문난 조성용 화백이 참가했다.

고려인·한인 러시아 연해주 이주 160돌 기념 문화 교류 행사에서 아르쎬시 칠성가무단이 부채춤을 선보였다.

(본사 기자)
(사진: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Более 250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стивале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16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Перв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стиваль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на приз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5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Примор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Восточные единоборства закаляют характер, укрепляют волю и разум, учат преодолевать трудности и побеждать. Именно эти качества свойственны успешным людям, которые ставят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и и успешно их реализуют. Россия –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на. Этот фестиваль собра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школ, культур и народов. Уверен, что он станет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и зрелищным спортивным праздником,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бъединять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нашей Родины, - озвучил приветстви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В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вошли выступления о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ратэ,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тхэквондистов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орнадо», а также матчевые встречи команд по тхэквондо 3х3,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выступили коллективы от ДШИ «Этнос» 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данный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ял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Фестиваль стал отлич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стью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навыки.

(Фото Ли Е Сика)

Учащиеся ДШИ «Этнос» проходят стажировк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Эноджи" (рук. Син Ю.Е., конц. Пак Ван Сун),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Кенари" (рук. Ким Е.С.), учащаяся по классу корейских дух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им Ариана (преп. Пак Ван Сун) ДШИ «Этно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стажировку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Намд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сле очень трудной и долгой дороги участники стажировки 15 ноября прибыли на место - остров Чиндо в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 Намдо. Ребятам предстоит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урс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им ударным инструментам, духовому инструменту тхэлюнсо и корейскому традиционному танцу.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покоряет метапространство

Завершилс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хакатон «Прикоснись к культур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лавная тематика хакатона — культура и обыча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Победители создали при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станет частью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экс-

пертом по приговору кимчи выступи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Организаторы Хакатона: Varwin Education ИТ-компания GS GROUP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9-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FLC Re-Union CIS в Москве



С 15 по 17 ноября 2024г.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9-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FLC Re-Union CIS,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л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15 регионов), Казахстане, Беларуси и Респ.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форуме представляли активисты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160-летие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Важный доклад под названием «Дорога длиной в 160 лет» сделала президент Koryo Global Network Евгения Цхай.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смогли сравнить переселение 160 лет назад из Кореи и нынешнее –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в Корею. Об истории принятия корейцами православной веры рассказал священник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отец Александр Сон, в ведении которого в Москве существует корейский православный приход.

Ярким и многообещающим б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Сергея Ха и Антона Доки,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ем проекте создани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выразили единодушную поддержку Сергею и Антону и пожелали им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Нынешний форум FLC Re-Union CIS впервые был проведен совместно с молодежным форумом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НТОК (<https://aksts.ru>). А выиграли от такой коллаборации и

участники FLC, и участники АНТОК.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ой бизнес-игре сплотило и сдружило корейскую молодежь обоих сообществ.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вызвала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известным кинопродюсером и режиссером Тимуром Хваном. Завязалас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ая дискуссия по теме «Герои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на основе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ов «Белый снег» и «Командир», соавтором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Тимур Хван.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диалоге с режиссером смогли найти ответы на свои вопросы.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а также и встреча с известным корееведом Марией Осетровой, которая выступила с лекцией о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Сейчас, когда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в явном мировом тренде, весьма непросто решить, с ка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чать знакомство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авторами. Поэтому лекция дала уникальный шанс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этим удивительным миром.

Форум проше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Overseas Koreans Agency) и Коре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гресса (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рума выражают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эт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Юбилейный 10-й по счету форум FLC Re-Union CIS запланирован в Москве в ноябре 2025г.

Александр Пак, координатор FLC CIS Club

Марина Лю стала чемпионкой Кубка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ITF

В Ташкенте прошли Кубок мир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ITF.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1159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 стран (Россия, Греция, Болгарии, Молдовы, Англии, Шотланд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КНДР и других стран).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арина Лю из Уссурийск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Кубка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ITF. Марина Лю стала единственной спортсменкой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павшей в сборную России.

13-летняя Марина Лю - двукратная абсолютная чемпион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четырех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 тхэквондо ITF.

Подготовкой спортсменки занимается тренер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ITF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снователь проекта Lee Team в Уссурийске Леонид Ли (на фото).

«В будущем я хочу стать чемпионкой мира, отучиться в Российском универ-



ситете спорта в Москве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святить свою жизнь трен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поделилась Марина Лю.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оссия и КНД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сшир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 ноября в Пхеньяне был утверждён протокол 11-го заседания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министр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КНДР Юн Чжон Хо и министр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О содержании протокола не сообщается. Однако российские СМИ сообщили, что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рганизацию прямых рейсов не только из 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о и из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ействует только один маршрут, соединяющий российский Владивосток с Пхеньяном.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стретался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он Ыном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Ким Ким Док Хуном. Кроме того, он передал в дар зоопарку Пхеньяна 70 животных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К и Китай будут сотрудничать рад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15 ноября в Лиме, столице Перу,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за два года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Обращаясь к китайскому коллег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поддержа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для решения различных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обе страны в условиях «быстрых изменений в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рядке». Он назвал Китай «важной страной», с которой РК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в област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и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ах.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еул и Пекин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на основе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общих интересов». Китайский лидер в ответ отметил, что две страны должны стремиться к «здоровому и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Хотя глобальн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ситуация изменилась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итаем и РК в целом сохранили динамику развития», - отметил он.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нешн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две страны должны поддерживать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охраняя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цел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 доба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РК разработает 39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тандарто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К 2031 году в РК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работать 39 но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тандартов для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рограмма представлена 18 ноября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технологий и стандартов (KATS) в ходе отраслевого форума. При этом агентство планирует разработать не менее 15 новых стандартов к 2027 году. Будут поддержаны усилия экспертов из академически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кругов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РК в област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заявил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О Гван Хэ.

Пианист Им Юн Чхан удостоен престижной французской наград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Им Юн Чхан получил премию Diapason d'Or de l'Annee, одну из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наград в индустрии звукозаписи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за альбом "Chopin: Etudes". Награда присуждена в категории молодых музыкантов. Премию учредил ведущий французский журнал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Diapason, и он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крупнейших мировых наград в мире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Каждый месяц журнал выбирает выдающиеся записи для Diapason d'Or, а в конце года лучшие работы в различных категориях награждаются Diapason d'Or de l'Annee. Альбом "Chopin: Etudes" получил ежемесячную награду в июне. В октябре Им Юн Чхан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престижной британской премии Gramophone Classical Music Award в категории фортепиано.

В декабре РК запустит третий военн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Запуск треть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третью декаду декабря с базы космических сил США Ванденберг в Калифор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8 но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Первый спутник, запущенный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августе признан пригодным к боевому применению и передаёт на Земл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Второй спутник был запущен в апреле.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на орбите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п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спутников, которые создадут независимую военную сеть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предупреждающего удара Kill Chain. Спутники собирают данные с помощью микроволн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RKI

Оппоз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рискует остаться без лидера на выборах: глава ведущей партии получил условный срок

Лиде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ппозиции получил условный срок за лжесвидетельство

Лидер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признан виновным в лжесвидетельстве и получил условный тюремный срок. Это закрывает политическую дорогу к участию 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2027 г. и влечет для него потерю депутатского мандата, что станет сильным ударом для оппозиционного лагеря. Кроме того, днем ранее штраф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выборах получила и жена Ли Ким Хе Гён. Сам политик назвал все это политическим заговором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РК, подав апелляцию на решение суда.

День 15 ноября, когда суд Цент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должен был вынести вердикт по первому из четырех серьезных обвин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К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а, в стане оппозиции ожидали с серьезной озабоченностью. Как оказалось, боялись не зря. Согласно вынесенному в пятницу вердикту, суд признал Ли Чжэ Мёна виновным в лжесвидетельстве и приговорил его к одному году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условно с испытательным сроком в два года.

Обвинения связаны с двумя эпизодами. В декабре 2021 года Ли Чжэ Мён, будучи губернатором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что не был знаком с Ким Мун Ги, бывшим главой Seongnam Development Corp., фигурировавшем в крупном коррупционном скандале. Однако в суде были предоставлены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опровергающие это утверждение. Второй эпизод касается заявлений Ли Чжэ Мёна во время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аудита, где он утверждал, что решение 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и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под жилую застройку было принято под давл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Суд посчитал эти заявления ложными, указав, чт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было инициативой самого Ли.

Суд особо отметил серьезность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ложные заявления, сделанные в преддверии выборов, подрывали доверие избирателей и нарушают принципы демократ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период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искажает волеизъявление граждан, что недопустимо", - заявил судья.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анного судебного решения очень велики для оппозиции. Если приговор будет подтвержден Верховным судом, то политик потеряет депутатский мандат и на 10 лет лишится права занимать выборные должности. Учитывая, что Ли Чжэ Мён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лидером партии, но и основным претендентом на позицию кандидата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2027 г., пользуясь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народ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у оппозиции "снимают с пробегов" главного фаворита на выборах. Адвокаты тут же заявили, что подадут апелляцию на вердикт, а потому история явно затянется до итогового реш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Сам

Ли назвал это политическим заговором против него со стороны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просто хотят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опасного конкурента на выборах. Нынешний вердикт стал серьезным ударом для оппозиции. Фигуре, равной Ли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и влиянию, в оппозиционном лагере пока нет. Время до выборов еще остается, но не факт, что удастся найти замену, а потому надежды теперь - на отмену решения судом более высокой инстан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давление создают другие судебные процессы, в которых фигурирует Ли Чжэ Мён. Среди них дело о подстрекательстве к лжесвидетельству, решение по которому ожидается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Обвинение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Ли Чжэ Мён требовал от бывшего помощника мэра Соннама дать ложные показания по делу о фальсификации, связанному с предыдущими выборам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ут же напомнила, что дело давно шло к аресту Ли - ордер прокуратуры пыталась получить ранее. В первый раз это не дал сделать парламент, отказавшись снимать депутатскую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Ли, а во второй раз уже суд счел, что следствие можно продолжать и без ареста. Тогда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отказ в аресте не означает невинности и, как видно теперь, была права.

Днем ранее обвинительный вердикт со стороны суда получила и жена Ли Чжэ Мёна Ким Хе Гён. Суворский окружной суд в четверг оштрафовал ее на 1,5 миллиона вон (около 1066 долларов)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бесплатных обедов во время первичных выборов партии в 2021 году, на которых определялся кандидат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партии на выборах 2022 года.

Согласно обвинению, Ким организовала обеды стоимостью 104 тысячи вон для жен трех бывших и действующих депутатов партии, а также трех своих помощников. Событие произошло в одном из ресторанов Сеула в августе 2021 года, вскор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Ли Чжэ Мён объявил о своем намерении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выборах.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для оплаты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корпоративная карт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которую возглавлял Ли Чжэ Мён в тот период.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секретарь Ким, известный по фамилии Пэ, оплатил обеды с разрешения жены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Суд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угрожают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прозрачности выборов. При этом Ким подвергли критике за отрицание вины и попытки переложи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 секретаря. Правда, и здесь адвокаты защиты не согласились с вердиктом, заявив, что подадут апелляцию.

В любом случае 14-15 ноября стали "черными днями" для оппозиционного лагеря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а очень реальной угроза того, что он останется без лидера и без главного претендента на победу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27 г. Виновной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признана и его же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Беспилотное воздушное такси: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и собираются перевозить людей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В Сеуле начнут перевозить людей на дронах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Южная Корея внов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вое лидерство в области инноваций, готовясь к запуску проекта воздуш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UAM) в Сеуле. Этот проект, предполагающий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ронов для перевозки пассажиров и грузов, должен стать революцией в городском транспорте и стартует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Сеула, пилотную программу проекта UAM запустят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5 год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вертопорты - площадки для взлета и посадки дронов, которые разместят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точках города, включая Ёйдо, Сусо, Чамсиль и аэропорт Кимпхо. Дроны начнут курсировать по двум основным маршрутам: один - на западе, он соедини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ыставочный центр KINTEX с аэропортом Кимпхо, а другой - на востоке свяжет район Чамсиль с транспортным узлом Сусо.

По данным городских властей, UAM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поездок на 60-70 процентов. Соглас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расчетам, дорога от пригорода Сеула Пхангё до центра мегаполис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которая обычно занимает около часа на автомобиле, сократится до 15 минут. Проект обещае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в размере 2,2 трлн вон (около 1,57 млрд долларов) ежегодно.

Полная реал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ного проекта разделена на три этапа и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к 2035 году. После пилотно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маршру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ула и его пригородов, включа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д рекой Ханган и ее притоками. Помимо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дроны с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а также дл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По словам сеуль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уже заручилось поддержкой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займутся разработкой и производством дронов. Так что, как обещают власти сеульской столицы,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концепц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чнет быстро и сильно меняться, так как грядет широк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рутинных перевозок людей и груз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али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проект бюджета региона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ход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поддержали проект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25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6 и 2027 годов.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ем лично и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депутаты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Максимально широкое обсуждение проекта бюджета - важная часть работы над главным финансовым документом региона. Для граждан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казать мнение о том, куда следует направить средства, и быть услышан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у обсуждения помогают создать проект бюджета,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и задачам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и запросам граждан.

Работа над главным финансовым документом велась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России. Нам удалось мобилизовать доходы и сформироват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й проек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2025-2027 годах расходы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цели,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Это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 2025 году доля социального блока в общем объеме расходов составит 48 процентов.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аш бюджет сохраняет свою социаль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и впредь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дороги, транспорт,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чтобы сделать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и безопасной. При этом продолжится работа по наращиванию доход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а,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выш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бизнеса. Сейча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ряд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Вскоре войдет в строй новая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дет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Вперед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ронайского порта, тре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Также в планах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в 2025-2027 годах ежегодный рост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ВРП) будет равен 2-3 процентам, номинальный ВРП к 2027 году превысит 2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отмети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Лопатина, доходы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2025 году составят 17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2026-ом - 194,5 миллиарда, в 2027 году - 19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бщий объем расходов на 2025 год - 203,3 миллиарда. Самая значительная сумма - 95 миллиардов -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Это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держка различ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физ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молодежная политика и культура.

Проект бюджета на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6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создание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одолж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Будут закуплены быстровозводимые моду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фельдшерских и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в селах Пионеры и Правда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Горное (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Победино (Смирновский район), Дачное, Третья Падь и Лесное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Петропавловское, Успенское и Огоньки (Анивский район),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Лопатина.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ы 64 объекта. Среди них две школы, одна школа-детский сад и один детсад, одно учрежде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четыре - культуры, три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я, а также 21 объект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с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поднимали депутаты при работе над проектом бюджета, в итоговом документе учтены. И потому проект бюджета на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оддерживаю, - сказала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Соци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бюджету и налог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Наталья Захарчук.

Значительный объем средств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на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Эт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культура, спорт. При это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адрес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 отметила депутат.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ях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СВО» Назар Архангельский.

Для меня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 проекте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поддержке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Плюс предусмотрена помощь семьям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детям без родителей, - сказал 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айя Кириллова подчеркнула важность участия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работе над бюджетом.

Мы на практике убедились, что это работает. В свое вре-

мя подняли вопрос о сносе старой школы в 19-ом микрорайо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о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у нас начнут строить новую. Это будет красивое большое здание с бассейном и спортивным комплексом, - поделилась она.

Участники слушаний поддержали проект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депутат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принять е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процесс перевода пациентов из поликлиники №1 в Центральную

Старейше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региона, Поликлиника № 1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еехало в корпуса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приема пациентов и работы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Подробнее о ситуации рассказали 19 ноября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дучрежден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Поликлиника № 1 была открыта в 1945 год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дание признано аварийным. Процесс переезда занял чуть больше одной недели. В двух корпусах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уже полностью рассредоточены участки бывшей Поликлиники №1. Маршрутизация пациентов проводилась с учетом проживания, близости к лечебным корпусам и пожеланий самих пациентов. Кроме двух корпус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черте город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открыта но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Дальнем.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жители села обслуживались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еперь он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медпомощь по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низится нагрузка на поликлиники города.

Комфорт пациентов,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это главные критерии, которых мы придерживались в переходном периоде. Среди пациентов первой поликлиники много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Им понадобила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помощь. Мы создали горячую линию на 1-300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задать вопрос по прикреплению и другим аспектам работы поликлиник. Ввели подворовой обход для опове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чтобы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мог знать ситуацию по своему участку и задать вопрос,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роцесс перевода участковых врачей в другие поликлиники для жителей цел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 непростой. Нормальная ситуация, когда люд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Мы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м за этим процессом, чтобы не было нарушений прав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мотрим, как происходи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пациентами. Отмечаем, что процесс происходит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о,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постарались максимально упростить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оцесса, - уточн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юза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фсоюзов Александр Козн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бывшей Поликлиники №1 ведется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рмативами.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вопросов по работе участков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на линию 1-300. Судьба зда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будет решаться совместно с жителями, сейчас в планах создать здесь удобное город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горожан.

Поликлиника № 1 являлась структурным подразделением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его базе открылся новый корпус, часть помещений в котором заняла клиника «Медскан». Благодар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новым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м центром, а также включению в программу госгарантий еще одной крупной медорганизации -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больницы, уд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региона.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сказались на листе ожидания, в который заносятся врачебные приемы, невозможные в кратк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Сейчас лист ожидания сократился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Я только вернулся с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 на котором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медицины. Ситуация по регионам такова, что в некоторых субъектах дефицит врачей составляет до 40%. У нас - не выше 5%.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 стране. Более того, мы работаем с обращениями граждан. Можно назвать это срезов проблем в медицине. В год поступает 13-15 жалоб, в основном они связаны с качеством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ации в бюро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ой экспертизы. Жалоб на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е был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региона находится в очень достойном состоянии, - отметил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толий Крутченко.

Станция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готова к запуску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Правда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ы. Не так давно станция водоочистки успешно прошла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объекта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артовало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Чистая вода»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Технически объект готов к запуску.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ы монтаж станции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с насосной станцией второго подъема, резервуаров чистой воды, резервуаров для технической воды и для сбора

дождевых стоков.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а блочно-модульная насосная станция водоснабжения, уложены сет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и связи, окончены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на экспертизу были сданы пробы во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лучено заключение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объекта капит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ебованиям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требования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снащенности приборами учета используем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станция начн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качественной водой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ела,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Станция очистки заменит устарев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будет очищать воду из существующего поверхностного водозабора на реке Зырянская от различных примесей, железа, запаха до нормати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спроектированы из расчета максимального суточ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воды 497,8 куб.м.

Оборудование станции размещается в закрытом комплектно-блочном здании каркасного типа. Здание оснащено отоплением, вентиляцией и освещением, станция очистки - системами контроля и управления доступом,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и охраны периметра. Объект функционирует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все техн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ы, поэтому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тоя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работников.

Для жителей села, безусловно, это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В период дождей или таяния снега из-под крана текла мутная вода,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необходимым нормам, нам приходилось покупать ее в магазине. Теперь же, думаю, вопрос решен, а это важный шаг к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в наше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Приятно, что про нас не забывают,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Марина Васильюк.

Такж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Чистая вода» 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Омор Смир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сех работ более 900 жителей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чистой водой.

Ране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был построен водопровод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свыше 2,4 тысячи метров в селе Славы Ты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2021 году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на реке Малка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В состав комплекса вошли блок очистки и повтор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омывных вод, включая установку обезвоживания образующихся осадков, операторная,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ая диспетчерска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бытовые помещения, лаборатори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химических и микробиологических анализов, лаборатор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ператив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В 2022 году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одозабора в селе Горнозаводск, а также построены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на водозаборе села Чехов с размещение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новом здании.

Более 500 соци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заключил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улучшение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емей с доходами ниж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заключается на срок от 3 до 12 месяцев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лученны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поиск работы или ведение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 это поддержка, помогающая малоимущим гражданам преодолеть врем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обрести финансов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повыс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адаптивность на рынке труда. Помощь выделяют малоимущим или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м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 одна из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За одиннадцать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уже заключено 508 соци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из которых 401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10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75 - на поиск работы и 22 - на и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преодолеть труд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Орлов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такой помощи с начала года более 10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лучшили свое финансовое положение. Объем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ляет 147,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сего за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программы заключено 5227 соци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Артём Непомнящи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гда мечтал открыть дело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О социальном контракте он узнал из интернета и решил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Благодаря социальному контракту я приобрел телевизионные мониторы. Теперь мы проводим разнообразны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гры и мероприятия, - поделился Артё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более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8-800-201-00-99.

Отметим, задача по повышению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жителей находится на контроле у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우즈베크 하원의원 당선 고려인에 축전

박 빅토르 · 아슬로노바 엠마 의원에 “양국 간 가교 역할해달라” 당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치러진 우즈베키스탄 총선*에 출마해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고려인 2명에게 축전을 보냈다. 10월 27일 하원(전체 150석)에 대해 실시했으며 자유민주당(여당, 64석), 국민부흥민주당(29석), 정의사회민주당(21석), 인민민주당(20석), 환경당(16석)이 원내 입성.

이 청장은 축전에서 “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3선)으로 당선된 박 빅토르 의원은 1958년생으로 2012년 이래 고려인문화협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아슬로노바 엠마 의원은 1973년생으로 2019년 조선에 이어 비례대표로 재선됐으며, 2023년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에도 참석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출범 이래 우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권익과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한국어의 특징과 문화번역

한국어의 특징은 언어적 특징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때 한국어는 당연히 한국인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문화 번역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의 특징 중에서 문화와 관련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높임법이 있을 겁니다.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높임법이 발달하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청자높임법이 발달한 겁니다. 즉 듣는 사람을 어떻게 높일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언어입니다. 높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낮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경우에 반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높임법의 느낌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대화 속에서 높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댓말로 하다가 반말을 하기도 하고 반말을 하다가 존댓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화 번역에서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형용사도 중요한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형용사가 발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국 문화가 변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색깔이나 날씨에 관한 형용사가 많다는 것은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붉다와 빨갳다, 벌겍다, 불그스름하다, 새빨갳다, 시뻘겍다, 불그죽죽하다 등의 느낌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이자라면 각각의 느낌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쌀쌀하다와 춥다, 서늘하다, 차갑다, 선선하다 등의 느낌을 제대로 번역하기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의태어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의태어는 의성어와 달리 대부분의 언어에 없습니다.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인 의태어는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걸음걸이를 나타내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살금살금, 살살, 어슬렁어슬렁, 터벅터벅, 아장아장 등의 어휘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저는 대부분의 의태어는 번역할 때 길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태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여야 할 겁니다.

조사와 어미의 발달이 한국어의 특징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나 알타이어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사를 바꾸면 같은 주어여도 느낌이 전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는’의 의미와 느낌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가 쓰이는 경우와 생략되는 경우의 느낌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자어와 고유어의 이중체계로 어휘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자어의 느낌과 고유어의 느낌을 번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어가 대명사가 잘 쓰이지 않는 것도 번역에 어려움을 줍니다. 대명사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 언어에서 볼 때 대명사를 생략하는 한국어는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를 번역할 때는 다양한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가 사할린으로 간 이유 2



▲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 (사진=박승의 제공)

한인이 끌려간 미의 땅 사할린 섬(일, 가라후토)

제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 79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할린 한인 문제가 있다. 일본이 사할린을 점령한 기간은 물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도 사할린 한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일본이 러·일전쟁(1904-1905)을 일으켜 1905년 포츠머스 평화조약에서 러시아로부터 사할린을 북위 50도로 분할을 강요하여 남사할린을 빼앗은 탓이다. 일본은 바로 남사할린을 점령한 후 병합시키고 지명도 일본식 가라후토로 개명했다.

가라후토(樺太)는 사할린 섬을 가리키는 일본식 표현으로, 역사적으로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에 의해 통치되던 북위 50°선 이남 사할린 지역을 말한다.

사할린 문서에서도 다루고 있던 '가라후토'라는 지명은 아이누어 '카무이 카르 푸트 야 모시르(Kamuy kar put ya mosir)'에서 왔으며, 화태(樺太)는 한자 훈차 표기로 한국에서는 '화태'라고 읽기도 한다.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근대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할린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전 사할린의 할양을 요구했으나,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러시아 제국에게서 할양받은 남사할린 일대만 통치할 수 있었다. 1907년 4월 1일 일본은 남사할린을 가라후토라는 이름으로 편입해 일본인들을 정착시키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청사는 도요하라 시(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소재했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정

사할린에 한인은 1880년에 이미 마우카(현 흠스크)에서 여러 명이 미역을 수거하기 위해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이주하면서 점차적으로 한인 어린이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할린이 남북으로 분할되면서 1937년 소련은 북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시키면서 북사할린의 한인은 모두 사라졌고 남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만 남게 됐다.

사할린 한인 문제는 바로 남사할린(가라후토)으로 일본이 전쟁 기간에 강제로 동원해 노동을 시킨 한국인을 말하는 것이다.

출신 별로 보면 남한 출신이 95%, 북한 출신이 5%였다. 북한 출신이 적은 것은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 북한에 군수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북한에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기를 거치면서 중국, 일본, 구소련 등지에 흩어져 있던 해외 한인들의 운명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세와 이해에 따라 각기 달라졌다. 그중에도 사할린 지역은 한인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소련, 일본, 미국 등의 이해가 얽히면서 귀환 자체가 봉쇄되었던 곳으로, 세계사에 아주 특별한 이주민 사례가 되었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친다.

제 1단계인 1870-1905년에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이 시기 한인들은 주로 더 나은 생활을 찾아 한반도의 북부 지역 함경도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었다. 러시아에 최초로 한인들이 출현한 시기는 1863년이었다. 1869년 사할린 섬은 유배와 유형지로 공포되었지만 최초의 유형자들은 이미 1858년에 있었다.



▲ 한·러·일 한국인 이주경로. (사진=쿠진, 2009)

1890년 사할린에 온 안톤 체후는 개인적으로 주민 조사를 진행했고 '사할린 섬'이라는 책에서 '세묘노프의 집에서 만주인들과 고려인들, 러시아인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초의 전체 주민 조사에 의하면 28000명의 사할린 주민 중 한인은 67명이었다.

제 2단계(1905-1945년)에 북위 50°를 기준으로 사할린이 두 개로 분리되었다. 이 시기 북사할린에 한인 주민이 형성되었던 것은 대륙(연해주)으로부터 이주와 한국으로부터의 이동(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아무르 유역의 니콜라옴스크, 또는 일본 열도를 경유하여), 그리고 자연 발생적인 증가의 결과였다.

남사할린에 종전 직후에 거주한 한인은 일본이 전쟁 물자 수급을 위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려고 강제적으로 동원해 보낸 사람들이다. 새로운 땅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인들도, 한국인들도 갔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일본 식민지들은 가혹한 군사정치체제의 수립과 경제 팽창을 진행해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군수 기업들에서 한국인을 노예처럼 부렸다.

그 당시 일본의 경제정책은 주로 토지 몰수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행정 자원을 끌어들이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신고하고 일본 재정 관청이 그 소유권을 확인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생존수단을 잃은 농민들은 소작인이나 일용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마저 박탈당한 헐벗고 굶주린 농민들은 산으로 올라가 개간 농업을 하거나 '타지' 즉 만주, 시베리아,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식민화의 촉진을 위해 일본은 '북진' 정책을 진행했다. 천연자원의 개발은 많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했다.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쓰비시', '미쓰이', '오지' 등의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 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조세감면과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면 1930년까지 '가와카미' (현, 시네고르스크) 탄광에는 약 50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다. 황제의 칙령 №33에 따라 1907년 4월 일본 정부가 만든 가라후토 총독 체제는 이 영토에서 가능한 최대의 천연자원을 유출하는 조치들을 실행시켰다.

(다음 호에 계속)

[글 =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

(2024.10.30)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д гостями выступ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н пожелал участникам хорошей борьбы, терпения и стойкости.

В первый день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ковер вышли порядка 200 спортсменов. 16 ноября боролись самбисты 10-12 и 16-18 лет. 17 ноября сильнейших определили среди юниоров и взрослых.

<사랑의 멜로디> 공연 포로나이스크에서 개최

11월 16일(토) <사랑의 멜로디> 공연이 포로나이스크 아동예술학교 무대에서 개최되었다고 '포로나이스크의 별' 기자가 전했다. 이 공연은 소비에트의 작곡가이자 인민예술가인 알렉산드라 파흐무토히와 탄생 95주년을 기념해 조성되었다.

연주자들과 가수들은 어린시절과 청년기에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예술적 성숙함 속에 매력을 잃지 않고 고령의 관객들에게 추억을 안겨주었다. 이 공연프로그램은 지역 러시아 여성연맹이 아동예술학교와 공동으로 준비했다.

В Поронайске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Мелодия любви»

16 ноября в Поронайске на сцене ДШИ прошел концерт «Мелодия любв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журналисты «Звезда Поронайска».

Концерт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честь 95-летнего юбилея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и СССР, композитора Александры Пахмутовой. Музыканты и исполнители напомнили зрителям постарше любимые песни юности и молодости, которые и в своей творческой зрелости не потеряли очарования. Над созданием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ботало ме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 с ДШИ

사할린 교도소에서 2쌍의 결혼식 치러

11월 15일 사할린 지역 러시아 연방 제1교도소에서 한 날에 2쌍의 결혼을 등록하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교도소 측이 전했다. 교도소 측은 "수감자들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도소기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오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조속한 석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ИЗО сыграли две свадьбы

В ФКУ СИЗО-1 УФСИН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ась необычная церемония: в один день бы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два брак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едомств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события в учреждение приехала сотрудница ЗАГСа, которая провела регистрацию по всем традициям.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бычаями свадебного торже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режимные условия. Новые семьи получ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обменялись кольцами и приня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сотрудников следственного изолятора.

"Поддержание социально-полезных связей лиц, содержащихся под стражей,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ей задачей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я, — отметили в ведомстве. — Создание семьи приносит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добавляет сил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жизненных трудностей и мотивирует к скорейше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사할린 주민들, 회사 신년축하회 대신 현금 보너스 원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근로자의 압도적 다수(74%)가 회사 신년축하회 대신 보너스를 선택했다고 '수퍼잡' 설문조사서비스가 자료를 공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근로자 5명 중 1명은 보너스 대신 명절 행사를 선호했다. 특히 34세 이상의 젊은 근로자들의 25%는 적극적으로 동료들과의 신년축하회를 선호했다.

35세 -45세의 도시민 88%는 단연코 보너스를 선호했는데 월평균 근로임금이 최소 5만 루블리에서 10만 루블리를 받는 근로자들도 보너스를 선호하는 수치가 80% 이상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생각하는 보너스의 규모는 1만에서 5만 루블리(46%)로 만족하고, 5명 중 1명은 5만 루블리에서 10만 루블리를 기대하고, 10만 루블리 이상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사람은 13%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새해 보너스로 6만 루블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대부분에게 전통적인 신년축하회보다 현금 보너스 형태가 더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Сахалинцы вместо новогоднего корпоратива хотят денежную премию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74%) работающих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брали бы премию вместо новогоднего корпоратива.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ит сервис Superjob.

Лишь каждый пят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готов отказаться от денежной награды в пользу празднич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Особенно это актуально для молодых сотрудников (до 34 лет), где 25% готов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Новый год с коллегами.

При этом 88% горожан в возрасте от 35 до 45 лет однозначно предпочитают премию, а для тех,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меньше 50 000 рублей или больше 100 000 рублей в месяц,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также превышает 80%.

Размер премии, который устроит большинство респондентов, колеблется от 10 000 до 50 000 рублей (46%). Каждый пятый готов довольствоваться суммой от 50 000 до 100 000 рублей, а 13% мечтают о сумме свыше 100 000 рублей. В среднем, южносахалинцы рассчитывают получить 60 000 рублей в качестве новогодней премии.

Опрос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инансов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в виде премии является более ценным подарком, чем традиционный новогодний корпорати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